

해양문화적 배경에서 본 제주도 1) 2)

고 선 휘*

I.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제주도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재검토에 있다. 재검토 과정에서 제주도의 지역성과 관련한 제주도민의 아이덴티티의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주도의 문화적 특징은 유교문화와 海洋性(海人)문화의 공존에 있다. 유교문화와 海人문화는 그 성격에 있어 대극적(對極的)이며, 양 문화의 공존은 제주도 문화의 다면성을 나타내는 측면이기도 하다. 海人文化의 共有라는 의미로서 일본과의 접점도 깊다. 中世 제주도인의 활동은 근래의 일본과의 관계까지 계속되었다. 오늘날의 재일제주도인의 존재는 규정한 근대의 일본과 제주도의 교류에도 제주도의 문화적 배경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II. 제주도의 지리적 · 역사적 배경

제주도는 한반도와는 다른 독자적 문화를 보유해 온 지역이다. 우선, 지리적 위치로 봐서 海人文化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105년 고려의 郡縣制下에 편입 되기까지는 탐라국이라는 독립국이였다. 그후 제주도(탐라)는 항상 한반도의 정치정세의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으로는 종속관계에 있었으나, 문화적으로는 독자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본다. 문화적인 독자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를 한반도(국가)가 정치적, 문화적으로 統合하려는 움직임은 조선시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책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에 통합되었지만 문화적인 통합까지는 할 수 없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었다. 1273년부터 약10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것도 중요한 史實이다. 그러한 영향은 몽골의 죄인, 몰락귀족, 元의 왕족 등의 피난처나 유형지, 병마 공급지로써의 역할만이 아닌 그 사람들과 함께 융화된 문화적인 면도 있으면 안된다. 한편 제주도가 한반도의 유형지가 된 것은 고려말기부터이

* 일본중앙대 강사

1) 본 논문은 일본중앙대학교에 제출한 박사논문 「20세기의 재일 제주도인 - 그 생활과정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2) 본 논문에서의 제주도는 전부가 漢字로 쓰면 濟州島이다. 행정단위로서의 道가 아니다.

며 유형자는 주로 정치범이었다. 정치범중에는 정치권력의 중심적인 세력층 권력투쟁에 패한 당파의 대표적인 인물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토착민에 의해 형성된 문화에다 주변국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의 문화가 융합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문화적 배경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시점을 제공한 전경수씨는 제주도의 역사·사회에 관한 諸연구에 비판적이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³⁾ 필자는 전경수씨의 시각에 동참하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은 제주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정립에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에 따라 史料를 음미해 가면, 외부인(주로 한반도와 한반도중심의 시각)들의 시선과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시점)이 다름으로 그 史料의 해석도 달라질 것이다. 그의 논문에 의하면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연(기원전 323~222년)나라의 공유 영토에 속하며, 당시 동지나 해상의 해양문화권과 해상교역로의 존재를 논하고 있다. 또 전은 제주도의 역사와 사지에 대해 반도(정복국가)에 의해 주변화된 제주도인을 나라(國家)를 잃은 流民의 피난지, 유배지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황량한 지역으로 인식시켜 왔다고 했다.

제주도의 역사와 사회연구에 제주도 중심의 시각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을 약간 생각해 보려 한다.

제주도 통사로서 잘 인용되는 金泰能의 『제주도 역사』(1969년)와 金錫贊의 『탐라기원』(1918년)이 있다. 둘 다 중국의 史料와 한반도의 史料에 의해 제주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 배경으로는 제주도 중심적인 시각의 역사기록이 없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로 인해 文字文化가 먼저 발달한 기록이 있었던 지역의 史料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역사를 편찬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歷史를 기술한 사람들은 유교교육의 영향과 그 교육과정으로 보아 中華思想에 근거한 中國의 史料나 한반도의 기록을 활용할 때 비판적일 수가 없었다고 본다. 또한, 조선시대부터의 中央집권적인 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제주도 중심적인 시점을 가진 제주도사가 기록될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두쪽의 記述에서 제주도 문화(해양문화적인 측면)의 결말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농업이 우위이고 海人생활을 下位로 봐 배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경향은 제주도 역사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에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거기에다 역사의 文字에 의한 記述과 지역 역사의 傳達방법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文字보급에 대해 학교가 설치된 시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1392년 부터이다. 그 시기까지 제주도인의 문자습득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극히 제한된 사람들의 전유물로 추측할 수 있다. 제주도 역사의 전승은 전설이나 神話처럼 「口述(口承)」에 의해 전해져 왔다. 제주도인의 「口述(口承)」은 지금도 남아있으며, 文字를 습득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현재까지도 아주 중요한 전승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Ⅲ. 유교의 영향 - 교육보급과 교육관 -

제주도에 있어서 유교의 영향은 조선시대 향교가 설치되면서부터 보급되었다고 보아진다. 제주도에 설립된 향교는 지방향교로서는 이른 시기(1392年)에 설치되었다. 향교는 고려시대(1127年)

3) 전경수 「상고 탐라사회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제4집, 제주도연구회 (1987년), pp.11~45

에 등장해,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조선시대 대표적인 공적 교육기관이었다. 향교 설치 목적은 인재양성과 유교이념의 보급을 통한 사회체제 확립으로 지방교육의 중심이었다.⁴⁾ 제주도에 일찍이 향교가 설치된 이유는, 이조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의한 것으로 제주도를 통합키 위한 정책의 일환이며, 빠른 교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⁵⁾ 제주도에 일찍이 향교가 설치됨에 따라 유생도 늘어났다. 그러나, 향교설치가 제주도인에게 육지 출신자처럼 과거를 통해 官界進出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제주도인이 과거를 보려면 육지까지 가야만 했다. 지리적 조건에 의한 제주도인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려 초시가 제주도에서 행해진 적도 있었으나, 제대로 정착되진 않았다.⁶⁾ 결과적으로 제주도민 유생에게는 과거를 통한 관계진출의 기회가 육지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즉, 조선시대의 관계진출의 등용문이었던 과거를 봐 출세할 수 없다는 기회의 불평등은 제주도인 유생의 교육관의 변동을 가져왔다. 유생의 학문의 목표인 과거를 통해 입신출세(관계진출)는 할 수 없었으므로 학문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인이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도 관료로서 중앙정계에 진출해 제주도를 떠나는 예는 극히 드물었고 합격했다는 「명예」를 얻는 것에 그쳤다. 그로 인해, 제주도인의 학문 목표는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고 입신출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된다. 즉, 제주도인의 학문은 실질적인 정책에 연결되는 것이 아닌, 「명예」라는 관념적인 가치가 부여될 뿐으로, 제주도에서 중앙(넓은세계)으로 진출하는 수단은 아니었다. 제주도인이 학문을 쌓아 과거를 보는 행위는 전국 수준이 아닌 제주도 내부의 경쟁이긴 하지만 그것은 「명예」를 얻는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변질된 과거는 제주도인에게 한반도(국가)에의 귀속의식 보다 지역(國)아이덴티티(인식)를 強化시켰다. 동시에 제주도 내부의 경쟁은 수많은 동족마을 단위의 경쟁으로 이어져 내부의 발전(유교의 침투와 성숙)을 진행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추측된다.

제주도인은 제주도 내부에서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학문과 향교에 집착했다. 그 이유는, 향교에 출입하는 자체가 특권의 상징이며, 다른 지방과는 달리, 그들(향교출입)이 향직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향직은 양반을 상징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⁷⁾. 제주도의 향직이 제주도인에 의해 독점되었다는 것은 제주도의 지역성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이라는 걸 지적해 두기로 하자.

조선 각 지의 유생 비율은 <표1-1>을 보면 제주도는 타지역보다 일찍 교육이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시의 유생은 「어느 지방에서도 유생중에는 양반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며, 그 유생의 수는 당시의 양반과 유생의 수로 봐도 좋다.」⁸⁾고 한다. 그리고 「양반에 이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생은 유교의 신자로서 經世濟民을 맡고있는 자이다. 유생의 정신에는 따로 자격이라는 것은 없고 士農工商을 따지지 않고 향교나 성균관에 들어가 - 중략 - 대부분은 양반이나 유생의 자손이 유생이 된다.」⁹⁾ 제주도에 유생이 많았던 배경으로 同族마을을 들 수 있다. 「유생이 많은 지방에는 양반이 많고, 양반 유생이 많은 지방은 그 계급에 속하는 동족부락이 다수 존재하

4), 5) 양진건 「조선조 제주도 교육시설」 『탐라문화』 제12호,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2년) pp.191~193

6) 양진건 「제주도와 오끼나와의 전통교육 비교」 『탐라문화』 제1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년) pp.98~99

7) 전계서 p.203

8) 善生永助 『조선의 聚落』 후편, 조선총독부 (1935년) p.660

9) 善生永助 『조선의 인구현상』 조선총독부 (1927년) p.96

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⁰⁾ 제주도는 유생을 많이 배출하고 동족마을도 많았다. 「전라남도에는 동족부락이 많은 郡이 각처에 있으나, 그 중에도 제주도 283이 특출하며」 다음으로 진주군 216, 안동군 183이었다.¹¹⁾ 진주군과 안동군은 옛부터 양반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즉, 동족부락이 많은 읍면을 꼽으면 - 중략 - 전라남도 제주군 구우면(현재의 한림읍과 한경면)의 89」이며 다음은 경상남도 진주읍 87, 함경북도 성을군 학성면 53의 순으로 전국적으로 봐도 제주도에겐 소규모 동족마을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¹²⁾ 제주도의 동족마을은 제주도적 地緣 結合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동족마을의 존재를 양반과 유생으로 관련시켜 보면, 제주도는 한반도 어느 곳보다 양반과 유생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그것을 배경으로하면 유생 수는 교육보급의 근거가 된다. 주의할 점은 제주도의 교육보급 비율은 아주 높으나, 전술한 것과 관련

표1-1 유생의 비율

도 별	남 성 인 구	유 생 수	남성인구 중 유생의 비율
경 기도	934, 307	15, 204	1.6%
충청북도	423, 098	3, 233	0.7%
충청남도	628, 965	6, 210	1%
전라북도	677,287	5, 713	0.8%
전라남도	958, 033	23, 473	2.4%
경상북도	1, 136, 989	33, 458	2.9%
경상남도	956, 827	11, 399	1.2%
황 해 도	706, 282	31, 291	4.4%
평안북도	690, 006	16, 637	2.4%
평안남도	607, 893	16, 618	2.7%
강 원 도	677, 187	21, 102	3.1%
함경북도	298, 999	13, 800	4.6%
함경남도	677, 461	20, 372	3%
제 주 도	93, 660	9, 036	9.6%
합 계	9, 466, 994	227, 546	2.4%

- 주) 1. 남성인구는 1925년말현재, 조선총독부 『조선의 인구현상』 (1927년) pp. 113~114
2. 제주도는 주1의 전라남도인구에서 제주도인구(주1의 p.224)를 빼고 그 위에 남녀의 퍼센트지(주1의 p.144)를 고려하여 계산했다.
3. 유생인구는 1928년현재 조선총독부 『조선의 취락후 동족부락』 pp. 514~515

시켜 보면, 보급비율은 높으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나? 中央 정치범의 유배지였던 관계로 中央의 진보된 學問을 직접 입수할 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교육 보급과 관련해 한반도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던 것으로 보아 계급(신분)과 경제적인 격차도

10) 전계서 p.203

11) 12) 전계서 p.511

심했다. 즉 한반도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의미했다. 한편, 한반도에 비해 제주도는 계급과 경제적 격차가 적은 지역이었다. 「島民은 일찍이 男女가 근면하며, 빈부의 차가 적고, 생활은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본다.」¹³⁾ 제주도는 한반도에 비해 결코 가난한 지역이 아니었다. 빈부의 차는, 土地所有상황으로도 그 편중됨을 볼 수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농업상 순수한 노동자는 거의 없고, 소작농도 아주 적고, 농가수 대부분은 자작농이다.」¹⁴⁾ 한반도에서는 대지주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은 소작농으로서 계급과 빈부의 차가 극명했다. 그에 비해 제주도의 토지소유는 소규모이지만 거의가 자작농(어업종사자도 많았지만)이며, 계급과 경제적 격차가 크지 않았고 그로인해 교육보급이 진행되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써 제주도인의 교육관은 직업을 얻은 수단으로서의 학문(단순 학력)이 아닌 교양(명예)을 갖추는 의미가 된다. 즉, 제주도인의 학문(학력)은 갖추어야 될 교양이며, 한반도처럼 학력이 사회적, 경제적인 지표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러한 교육관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일 제주도민의 앙케이트 조사와 면접 조사에도 「공부를 위해」 渡日한 사람이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에 「공부」의 가치를 찾아 渡日하는 행동의 목표는 「공부」한 결과 얻을 수 있는 「학력」을 수단으로한 입신출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공부」의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갖는 게 당연하다는 제주도인의 「공부」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다. 제주도인은 생활을 위해 배우는 것보다 인간으로서 교양을 갖춘다는 데 「공부」의 동기가 있었다. 거기에는 제주도민의 교육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을 가진 제주도민은 학문은 교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학력 지향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한반도에 비해 학력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일도 적다.

전술한 제주도의 교육(그 내용은 유교)보급은 제주도인의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¹⁵⁾ 그 예로서, 관혼상제에는 유교의 영향을 볼 수 있다. 특히 葬禮에는 현재도 유교적인 방식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유교는 한반도를 통해 들어와 보급된 것인데 國家觀(제주도인의 국가관 참조) 및 정치관이 변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한반도의 유교와 제주도의 유교는 동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로인해, 한반도에서 본 제주도는 「유교적 양반문화의 회박과 결여」된 지역으로 비쳤다.¹⁶⁾ 여기서 「유교적 양반문화」는 한반도의 유생비율처럼, 권력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일부 양반에 독점된 일원화한 것을 가르쳐, 반도(한국)에서는 문화적 상위개념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일부 권력층을 정점으로 한 신분적인 계급의 구별(종적)과 남존여비가 엄격해 그러한 구별을 뛰어 넘는 것을 허용치 않는 사회이다. 한반도가 종적인 사회라면, 제주도는 빈부차가 적고, 교육이 보급된 남존여비가 심하지 않은 다원적이며 완만한 횡적사회였다. 예를 들어 교육보급의 정도를 봐도 제주도가 「유교적 양반문화」의 회박이나 결여는 부정된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유입한 유교문화가 생활양식의 일부가 되어, 지금까지 그 영향은 풍부히 남아있는 지

13)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濟州島』 (1929년) p.148

14) 조선총독부, 전계서 p.83

15) 加地伸行 著 『儒教のは何か』 中公新書, p.88

中央公論(1993년)을 참조하면, 제주도 유교는 중국에서 유교가 확립되기 전 상태인 原儒에 가깝다고 본다.

16)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1984년) 일지사, p.12

역이다. 그 증거로서 제일제주인이 지키는 제사를 꼽을 수 있었는데, 제일 한국인 중 가장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들 수 있다.

IV. 제주도민의 國家觀

제주도민의 국가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자. 제주도는 전술한 것처럼 독립된 國家였다. 그 점은 제주도인의 국가관 형성에 중요한 점이다. 한반도의 일부가 以前 독립국가(삼국시대의 신라, 백제, 고구려 등)였던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14세기 고려 말, 제주도는 고려정부가 총괄할 수 있는 섬이 아니었다. 원의 직할복장이라는 前史를 가진 이섬은 원의 쇠퇴라는 상황에서 몽골계 사람을 중심으로 島民은 자주 반란을 일으켜, 고려정부의 지배관철을 허용치 않았다.」¹⁷⁾ 그래서, 「조선정부로서는 제주도의 복속화 또는 조선화는 해결해야될 중요한 정치과제였다.」¹⁸⁾ 이왕조는 제주도의 조선화를 제주도인 관료를 통해 행하였다. 그 제주도 관료는 「섬내 최대의 전통적인 세력에 속한」 인물로서, 그의 「활동은 전부 제주도와 관계가 있으며 - 중략 - 제주도 출신 관료라기 보다, 오히려 조선의 관료제에 들어간 제주도의 대표였다.」¹⁹⁾ 이왕조가 제주도의 조선화를 제주도인 관료를 통해 행한 것은 제주도인 관료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주도인 관료의 주도에 따라 제주도의 조선화는 제주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행해진 것으로, 제주도의 독자성은 지켜졌다고 본다. 결국, 제주도인 관료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당상관까지 승진했으면서도, 조선의 관료가 되지는 못했다. 세종께 충실한 탐라인(제주도인)으로서 있었다.」²⁰⁾ 제주도인 관료는 제주도와 조선정부 사이의 조정역이며, 그 움직임은 제주도의 조선화 과정에서 제주도의 자주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놓여진다. 그러나 제주도 향직은 제주도인이 독점하고있었기 때문에 민중수준까지 조선화의 침투, 국가관 형성은 이루지 못했다. 전술한 것처럼, 이왕조는 제주도는 조선화하면서도 제주도인을 중앙에 진출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제주도는 고립(地理的, 文化的)되었다. 제주도가 조선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고립될 것은, 제주도인으로 하여금 조선국가의 일원이라는 국가관을 심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라는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시켜 제주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강화시켰다. 제주도인의 양반 유생 같은 중심세력은 이왕조의 정치이념이었던 유교사상은 받아들였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진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해, 국가관은 현실적 일체감을 주는 게 아닌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경향은 양반과 유생이라는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도 영향을 미쳐 제주도인에게 국가(한반도)에 귀속의식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다. 결국,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한반도에 종속되었으면서도, 탐라(國, 나라)人(제주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유지되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이왕조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제주도의 자주성을 지키는 정치체제는 계속되었다. 즉, 중앙에서 파견된 지배자는 제주도인 향직을 통해 제주도를 지배했다. 그 과정에서 향

17), 18), 19), 20), 21) 高橋公明 「제주도 출신의 관료고득가 について」 『濟州島』 4호 (1991년) 탐라연구회 p.41

직을 수행하는 자는 中央에서 파견된 지배자의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세력과 향직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왕조가 제주도의 조선화 과정에 제주도 전통적인 세력을 경계한 정책을 전개한 것을 고려한다면, 제주도는 이왕조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통적인 세력에 의해 자주성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왕조가 조선화과정에서 제주도 전통세력을 경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전통 세력을 희유키 위해 그 자녀를 수도로 불러들여 궁정의 일을 시켰다. (1394年, 1409年) 그리고 전통 세력의 역사적 관계를 끊는 것과 약체화를 꾀한 국가기강에 편입도 행해졌다. (1404年, 1408年, 1428年) 그러나, 이왕조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통 세력은 「제주도를 떠난 후도 조선의 관료기관과는 별도로 수도에서 제주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²¹⁾ 제주도는 이왕조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중요한 결정은 전통세력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제주도와 전통세력을 완전히 끊을 수 없었던 이왕조의 제주도 조선화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제주도의 자주성은 제주도인과 수도에 있는 전통 세력의 연대에 의해 유지되어졌다. 제주도인으로서의 형식적으로는 이왕조에 종속해 있으면서도 제주도의 자주성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다. 그 예로서 제주도에 대한 불이익이나 자주성 침범에 관해 제주도인은 민감히 반응으로 대처하는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일본의 어업진출에 대한 제주도인의 정치적 행동을 보면 제주도인의 국가관이 표명되어있다.

일본의 어업 진출에 반대한 제주도인은 「본 섬은 어업을 生業으로 하며 그 종사자는 부녀자이므로 외국인이 들어오는게 싫다고 전 도민이 탄원하며, 목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직소하러 제주도민 수십명이 상경함으로 인해, 목사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인걸 보면, 제주도민은 제주도의 불이익에 대해서 목사라는 행정적 최고 책임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하고있다.²²⁾ 정치적인 행동을 한때도 당시 일본정부에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이었던 김옥균에게 접근해 김옥균을 통하여 제주도 사정을 고려해 주도록 일본에 요청한다. 이러한 곳에서도 재경제 주도인과 재향 제주도인의 연대한 행동이 보인다. 재차 일본정부에 요청하다 효력이 없자, 제주도인은 일본정부에 대해 제주도는 조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제주도는 조선에 속하지 않음으로 한·일간의 조약을 제주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는 제주도인의 국가관이 표출된다. 제주도인은 조선이라는 국가에 귀속되어있지 않다는 주장은 제주도인은 제주도인이자 조선인이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일본의 어업진출에 대한 제주도인의 반대는 대단히 강경한 것이었다. 우선, 수차례에 걸쳐 조선정부 합의를, 일본정부에 요청, 데모 등 정치적인 행동을 불사했다.

그 규모도 수십명에서 백여명에 이르기까지 사건에 따라 상경하는 제주도인 수도 늘었다. 그러한 제주도인의 정치적 행동에는 유생이 주도해 민간인을 포함한 島內에서의 활동과 조선정부를 설득, 조선정부로 하여금 일본정부에 요청, 직접 일본정부에 항의에 이르는, 대단히 전략적인 것들이었다.

이렇게 몇 년간에 걸친 민간인(제주도인)들의 저항은 일본의 조선진출에서 타지방에는 없었던 현상이었다. 이러한 제주도인의 행동은 행정적으로 종속되었던 조선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제주도의 이익(자주성)을 지키려는 행동이었다.

22), 23) 외무성 편찬 『일본외교문서』 제17권, 일본국제연합협회(1963년) pp.378~379

그때까지 조선정부에 종속됨으로서 지켜졌던 제주도의 자주성이 일본의 어업진출로 인해 침해 당할 위기에 처한 제주도인들은 조선정부에 저항해 일본인 일본정부에 굴하지 않으려 전력을 다했었다.

한편, 제주도의 저항을 조선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았는가? 조선초기에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당상관까지 출세했던 제주도인 관료를 보는 당시의 견해는 「海外人」이었다. 즉 「僑人, 嬖人과 비교할 수 있는」 외국인이었던 것이다.

19세기말 일본이 어업진출 때 조선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견해는 「한반도와는 풍속도 다르고 사람들이 강해 국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였다.²³⁾ 이 견해를 일본정부도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정부의 제주도 인식으로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초기에 제주도인에 대한 편견은 500년동안 변함없이 계속 되어진 것이다.

한반도(국가)의 제주도에 대한 편견은 해방후까지도 계속되어졌다고 본다. 그로 인해 제주도인이 제주도의 자주성을 지키려한 정치적 행동이 때로는 반체제적으로 비춰진 면도 많았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한반도에의 통합은 제주도인이 자주적으로 원한게 아니었다. 제주도인은 한반도(국가)가 제주도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것도 아니며,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단지 제주도는 獨立국가로서는 약소함으로, 주변국가의 영향하에 속하면 타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는다는 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국가)에 종속된채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주도인의 자주성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계속적인 투쟁을 하였다.

제주도인의 국가관을 보면, 제주도는 하나의 나라(country)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한반도)은 한 국가(state)가 되나, 귀속의식은 관념적이며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과 현실적으로는 합치될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제주도인의 아이덴티티는 나라(제주도)와 국가(한국, 한반도)라는 이중구조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인간의 외부인들과의 관계도 이중적이다. 이중구조를 형성케 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강력한 한국화 정책에 의한다. 사실 제주도인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가르킨다. 그러나, 제주도인들이 제주도인으로서의 인식과 아이덴티티 유지는 체계화된 것이 아닌 내재된 것으로 개인적 행동수준에서도 표출된다.

제주도인의 국가관은 제주도(國)인이라는 의식이 강한데 비해, 국가라는 관념은 희박한 것이 특징이다.

V. 맺는말

제주도의 문화적 배경을 재조명함으로써 제주도인의 아이덴티티 정립을 살펴 보았다. 海人文化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피기로 하겠으나, 中世에서 볼 수 있었던 제주도인들의 행동은 20세기말인 현재에도 그 맥락을 볼수가 있다. 이러한 史實들은 제주도인이 제주도의 자주성을 위해 고도의 외교정책을 펼쳐 유동적인 태도로서 실질적인 이익을 지키려 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알려준다.

처음에 의도한데까지 논의를 펼칠 수가 없었으나, 제주도의 역사를 재조명해보면 제주도는 일찍부터 국제적인 이동을 해왔던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